

호남 대선주자 천정배의 ‘고군 분투’

래퍼 변신·셀프 디스 등 망가짐도 불사
덧발 지지세 모아 반전 계기 마련 주력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 을)의 ‘고군분투’ 대선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천 의원이 대선 출마 선언에 나선 것은 지난해 12월 말, 기대했던 만큼 지지율이 뜨지 않으면서 당내 경선 전망마저 어두운 상황이다.

과거 집권 여당 원내대표, 법무부장관, 제1야당 최고위원, 국민의당 공동대표 등을 지내며 대표적인 개혁 성향 정치인으로 평가받아온 그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호남 정치 복원’의 화두로 지난 19대 국회 재보궐 선거를 통해 광주에 안착한 그로서는 호남 민심의 미온적인 반응은 뼈아픈 자괴감이다.

하지만 천 의원은 냉혹한 현실에 낙담하기 보다는 오히려 망가지는 모습도 마다하지 않으며 반전의 계기 마련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래퍼로 변신, ‘내 이름을 기억해’라는 랩송을 선보이며 최고령 래퍼를 자처하는가 하면 지상파 방송 출연이 여의치 않자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소셜토크 쉔전(千)’을 진행하기도 했다. <사진> 여기에 저조한 지지율에 대해 ‘아예 지지율이 없다’며 셀프 디스(Self-disrespect)에 나서는가 하면 천 의원의 대선 출마 자체를 모르는 유권자와의 대화가 담긴 동영상도 과감하게 공개, 화제가 됐다.

특히, 천 의원은 대선 주자로서 전국 투 어보다는 호남 민심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호남 민심의 지지 없이는 경선 및 대선 승리도 없다는 것이다. 호남에서 출발, 전국으로 무대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과 그동안 소외됐던 호남의 몫을 찾는 데 가장 부합하는 맞춤형 후보라는 점을 강



조하며 민심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천 의원의 대선 행보와 관련, 정치적 ‘오체투지(五體投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의 정치 행보에 대한 반성과 성찰,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바닥에서부터 담고 있다는 것이다.

천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 심판과 ‘호남 정치 복원’을 내세워 승리, 국민의당 바람을 일으키는 실질적 원동력이 됐다.

하지만 개혁신당 창당과 국민의당과 합당 국면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가 주장했던 ‘젊은 DJ’ 발굴이 무산되고 함께 했던 사람들과의 갈등과 결별 등

오히려 상처가 많았다.

이에 천 의원의 대선 출마는 스스로 선택한 정치적 시련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대다수의 호남 중진들과는 다르게 직접 도전에 나섰다다는 점에서 ‘천정배 답다’는 평가도 나온다.

천 의원은 5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의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 정치에 입문했던 초심을 토대로 호남 민심 속으로 걸어가고 있다”며 “호남의 선택이 대선을 좌우한다. 호남 민심이 대세론에 흔들리기 보다는 어떤 후보가 시대와 호남을 위해 적합한지를 주체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의 진정성이 호남 민심을 움직여 당내 경선과 대선에서 이변을 일으킬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천 의원의 도전은 성사 여부를 떠나 DJ(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유력한 대선 주자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호남의 현실에 시사점이 크다는 지적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전국 확대 시행

광주시 주요 시책 중 하나

‘Job으로 GO’도 공모 선정

민선 6기 광주시의 주요 시책 중 하나인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지난 2011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가 제정된 뒤 결실을 맺은 것이다.

광주시는 여성가족부가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을 모델로 한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사업을 전국에 공모하는 등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광주시의 학교 밖 청소년 작업장인 ‘Job으로 GO’도 이 공모에 선정돼 1억 3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Job으로 GO’는 진로 및 직업 워크숍, 기술교육, 생활매니저를 통한 멘토링 등을 거쳐 학교 밖 청소년 작업장 취업이

나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 인턴십 과정으로 연계한다.

광주시는 2011년 전국 첫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를 계기로 전국 220여 곳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관련 정책 개발과 지원 등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광주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자립지원을 위해 2015년 대인시장 내에 ‘생각하는 손’이라는 목공장을 시작으로 미디어작업장 ‘찰나’ 수공예작업장 ‘러브레터’ 커피&쿠링 ‘남동풍’ 등 4곳의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는 5호점인 미용&네일 작업장이 문을 연다.

작업장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고용해 제품생산 및 판매 등을 통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기술교육 등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군 공항 이전 초과비용 국방부 부담 명시”

권은희 의원, 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권은희(광주 광산을) 의원은 5일 군 공항 이전 사업시행자와 지자체의 비용 부담 범위를 명시하고 초과비용 발생 시 국방부와 협의해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초과비용을 국방부가 부담할 경우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상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추가 요구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은 국방부가 부담하고 종전부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현재 도심 내 군 공항을 이전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새 군 공항을 지어 ‘기부’하고 국방부가 기존 공항을 지자체

에 ‘양여’해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새 공항 건설에 대규모 자금을 쏟아붓고 기존 부지 개발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자칫 막대한 손

해만 떠안을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대부분 부지 선정조차 못하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역시 광주시가 올해까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2022년까지 이전해, 기존 부지에 2025년까지 신도시인 가창 솔마루시티를 조성하는 로드맵을 마련했으나 현재까지 예비 이전 후보지도 정하지 못했다.

권 의원은 “50년 넘게 전투기 굉음으로 고통받은 시민들을 위해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평생교육진흥원, 사업 수행 기관 공모

전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을 수행할 시·군 및 평생교육 기관·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공모는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 ▲시·군 평생교육 DB 구축 지원 ▲남도학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지원 ▲배움+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등 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지원 규모는 모두 합쳐 1억3000만원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은 노인·장애인 등 교육 취약계층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 도민의 다양한 교육 요구 충족, 지역의 평생교육 특화 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5개 분야 모두 23일까지다. 사업별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은 전남도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www.jinil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우승 전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도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국민의당 경선 룰 막판 진통

安 “여론조사 비중 확대” 孫 “배심원제 일부 도입”

국민의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 측은 현장투표 부작용에 대한 위험성을 내세워 여론조사 비중 확대를, 손학규 전 대표 측은 현장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숙의배심원제를 일부 도입하자고 팽팽하게 맞섰다.

국민의당은 5일 밤 최고위원회를 열어 최종 경선을 확정짓는 시도를 했지만 진통은 계속됐다.

무엇보다 국민의당 대선기획단이 제시한 현장투표 75%, 여론조사(or 공론조사) 25%의 절충안이 후보들에 의해 맞아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손학규 전 의장 측 이찬열·박우섭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는 오차 범위로 인한 부정확성과 조작 우려가 있으며 경선 흥행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서 “원칙적으로 전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안 전 대표 측이 제시한 공론조사 역시 TV토론을 시청하게 한 후 전화로 후보 적합도를 묻는 방식이므로 일종의 변형된 여론조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손 전 의장 측은 ‘현장투표

80%+숙의배심원제 20%’ 도입 방안을 제안으로 내놔다. 숙의배심원제는 일정 수의 배심원을 사전에 모집한 후 한자리에 모여 토론을 참관하게 한 뒤 같은 장소에서 투표를 완료하는 방식이다.

앞서 안 전 대표 측은 ‘현장투표 40%+여론조사 30%+공론조사 30%’ 방안을 내놓았지만 손 전 의장 측의 반대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수차례 협상은 결렬됐고, 대선기획단은 중재안을 내놓은 상태다.

앞서 손 전 대표 측은 지난 3일엔 입장문을 배포, 안 전 대표 측 대리인이 공론조사와 여론조사를 고집할 경우 10% 정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지원 대표는 대선기획단의 중재안을 갖고 각 주자와 접촉해 수용을 설득해왔지만 쉽게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자 측 대리인들은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여의도 당사에서 이용호 경선룰TF팀장 주재하는 회동을 갖고 막판 조율을 시도했지만 진통이 이어졌다.

/백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상사화·구절초 심어 입주민 환영

4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아이파크 단지 내에서 동구청 직원, 학3구역재개발조합 및 입주민들이 아파트 입주를 환영하는 의미에서 단지 정원에 상사화, 구절초, 할미꽃 등을 식재하고 있다.

4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아이파크 단

지 내에서 동구청 직원, 학3구역재개발조합 및 입주민들이 아파트 입주를 환영하는 의미에서 단지 정원에 상사화, 구절초, 할미꽃 등을 식재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국제마음훈련원

참마음 훈련

주 제

일심 알음알이 실행으로 감사보은 하자

일 시

2017년 3월 21일(화) ~ 24일(금)

장 소

국제마음훈련원

접 수

국제마음훈련원 061-353-1043, 010-8669-0527

훈련비

20만원

준비물

세면도구, 모자, 편안한 복장, 운동화, 여벌옷 등

주 소

전남 영광군 백수읍 해안로 1840

국제마음훈련원 전경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광주남구 구청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신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NAVER 주(D) 대신프리모

배비트
나주명행
500m
구룡교
대산프리모가발